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 보 랴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52호 2014년 1월

HEADLINE

뉴스 2P 지장협, 새로운 발전을 위해	특집 I 12P 지장협 2014년 신년인사회 화보	특집 II 13P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국제 18P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장애인 거부?
---------------------------------	---------------------------------------	---------------------------------------	--

지장협, “장애인 행복 사회를 향해...”

새해 계획 발표... ‘클린 지장협’ 위한 윤리헌장 채택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임원, 내빈들이 2014년 지장협의 발전을 기원하며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을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2014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협회장, 231개 시·군·구지회장 등은 올 한해 장애인 행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장협의 역사성 재정립을 위해 협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양경자 전 국회의원의 고문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새로운 각오로 올 한해를 맞이할 것”이라며 “협회 문제 해결은 물론 장애인

회였다.

또한 “올해는 투명한 조직 운영에 역량을 집중해 클린 지장협을 만들 것”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지장협은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정직한 업무 수행, 신뢰 받는 조직문화 창출, 공익 발전 추구 등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12면에 계속>

문형표 장관, 장애인 지원 확대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장애계의 질책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날은 문 장관과 장애계가 처음 마주한 날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의 장애인 공약 실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완배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정책이 다른 정책에 가려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 역시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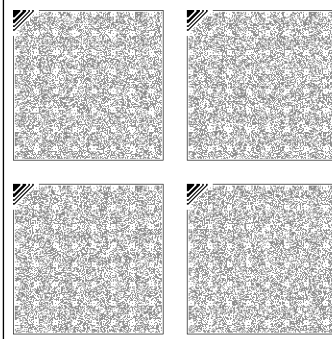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

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힘쓰고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한걸음 진보된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올 한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문 장관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장애인정책체계기획단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 해 종합판정체계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분들께 장애인연금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발달장애인법 통과, 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인 고용 확대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新年辭

갑오년(甲午年) 새해, 지장협이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국의 임직원 및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저 김광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제가 전국의 회원들과 대의원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에 중앙회장이 된지 어느덧 6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장애인들이 힘없고 가난하며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던 시절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우리 협회는 그 소임을 다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6개월 간 그동안 쏟아져 나온 협회의 문제와 각종 업무를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묵묵히 중앙회가 할 일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회장 인선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미완성인 인간인지라 불만과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장애인단체장의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협회의 새로운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저 역시도 새로운 각오로 2014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입사 후 자전거를 빌려타고 지방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던 과거를 거울 삼아 지장협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신발끈을 잡아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 장애인 의식개혁과 교육, 올해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서의 장애인 정치세력화 등 굵직한 장애에 현안과 협회 경영의 내실화와 재무 구조 강화, 협회의 산적한 문제 등을 직접 챙기고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사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난 지금도 불순한 세력들을 모아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협회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장협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배상

권익위 권고 이행 우수기관은?

국가보훈처 가장 우수...보건복지부 저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내린 시정권고 사항 수용률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국가보훈처, 저조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274개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2113건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권익위 권고사항은 1852건으로

평균 수용률은 87.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10건, 경북 구미시가 16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100%의 수용률을 기록,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127건 중 124건, 국토교통부가 254건 중 242건, 국방부가 100건 중 95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각각 97.6%, 95.3%, 95.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6건 가운데 8건의 권익위 권고사항만을 이행해 50.0%의 가장 저조한 수행률을 보였다.

서울특별시 19건 중 10건, 근로복지공단 54건 중 36건, 국민연금공단 11건 중 8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이행해 각각 52.6%, 66.7%, 72.7%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권익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1.5%(760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3.5%(568건), 공직유관단체는 87.1%(500건)로 지방자치단체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한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데도 소극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2호 2014년 1월 27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에서 7단계로

소득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현행(3단계)	개선(7단계)
1분기	200만원	120만원
2분기		150만원
3분기		
4분기		200만원
5분기		
6분기	300만원	250만원
7분기		300만원
8분기		
9분기	400만원	400만원
10분기		500만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항. <자료 :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데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1~5분위 200만원, 6~8분위 300만원, 9~10분위 500만원 등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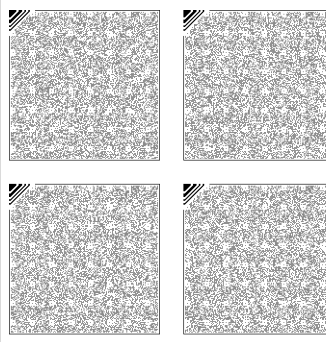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등 7단계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아 한 해 총 병원비 554만원 가운데 354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80만원 더 경감된 43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최소 15만명으로 추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정된다”며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소득 구간 확인과 환급 금액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명서

지장협 의 정통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존중한다!

지난해 10월 모 후보가 중앙회장을 상대로 서울남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2013카합683)에서 재판부는 1월 7일 기각결정을 판결하였다.

정관과 제규정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를 주장했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등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했으므로 당선자인 중앙회장의 직무집행을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여에 이르러서야 협회 내부의 공식적인 이의 절차는 전혀 없이 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흑시나 하는 요행으로 협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들의 행위는 우리협회 15만여 회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무엇보다 새로운 체제에서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개혁적 기치를 드높이고자 열정적으로 임했던 제7대 중앙회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분열을 조장했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관과 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전 제6

대 중앙회장체제에서 금번 가처분소송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파악되고 있는 전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이사회에서 지난해 4월 선거 이전에 개정되었으며,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금품제공 약속 등은 전 서울협 회장인 이모 후보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인물 또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앙회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로서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고자 하는 음모를 품고 금번 소송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된 흑색선전을 부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수사과정에서 동영상의 유포자는 이모 후보측 운동원으로 밝혀졌고 급기야는 김광환 후보진영의 부탁을 받고 유포했다는 허위진술로서 중앙회장을 모함한 것이다.

더욱이 저들은 소송을 이기기 위하여 “이번 선거에서 채모 후보를 지지했으나 폭력관련 동영상 보고 김광환 후보를 찍었으며, 알고 보니 허위의 흑색선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선거가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으로 4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중 몇 명은 대의원 자격도 없어 총회장에 입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불참한 사람, 심지어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허

위로 서명이 되어 제출된 확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무슨 간교한 모함이란 말인가? 철저하게 비밀투표와 자유투표가 보장되어 있는데 누가 누굴 지지하고 찍었는지는 확인서가 말이 되는가? 허위로 서명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송 당사자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문서로 재판부를 기망한 저들의 술책은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절대 소송에 관여하지 말라는 중앙회의 방침을 어겨가며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과 아둔한 행동으로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조직원들이 과연 장애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지, 우리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소송으로 우리협회는 소송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열양상으로 개혁이 늦어지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

우리는 조직 내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비겁하게 소송을 통해 뒤에 숨어서 요행을 바라며 우리 협회에 엄

청난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회주의자와 모사꾼들은 이번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지장협을 떠나는 양심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바란다. 그것이 회원들에 의해 강제로 영구 제명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점을 권고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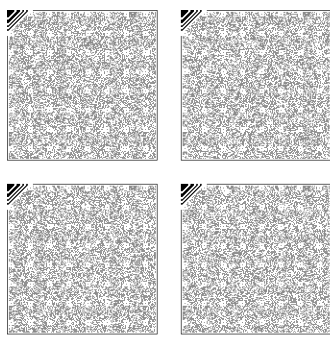
금번 결정은 정상적인 선거과정을 거친 대의원들의 준엄한 의사가 존중된 당연한 판결이며, 지장협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만천하에 밝혀준 정의로운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우리 협회는 정관 및 제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협회가 더 이상 복지를 빙자한 탐욕스런 기득권자들의 독무대가 되지 않도록 개혁의 기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협회는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명실공히 국내 최대 장애인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서 사회변혁과 발전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지장협 회원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천명하고자 한다.

2014년 1월 16일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리로 읽는 새보람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인권위, 해당 지역 보행환경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 해당 지역 경찰청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길을 건너거나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지역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지하도를 통해 길을 건널 수 없었다.

지상의 횡단보도는 해당 사거

리로부터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 46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실제로 해당지점의 지하도 출구에서 건너편 방향의 출구로 가는데 비장애인은 1분 11초가 걸린 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19분 47초나 걸렸다.

해당 지역 교차로의 경우도 지

하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근처 횡단보도는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 67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주

변 보행로의 일부구간은 5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등 안전한 통행이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해당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횡단보도와 지하도 간의 거리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지하상가 상인의 상권과 연관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0% 밀돌아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 설치율 특히 저조



전국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0%를 밀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시설 가운데서도 위생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 1천동의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428만여개로 집계

돼 67.9%의 설치율을 보였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출입문, 승강기, 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로 나타났으며 화장실, 욕실 등의 위생시설 설치율은 46.7%에 그쳤다.

건물 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80.8%)이 가장 높았고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이 뒤를 이었다. 공원(55.3%), 노약자시설(59.7%)

은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가장 높았고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67.2%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알리미 ‘꿈드래’ 홈페이지 오픈

상품 상세 정보 제공...판매 활성화 기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중증장애인생산물 관리체계화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꿈드래’(http://www.goods.go.kr)를 1월 14일 오픈했다.

꿈드래는 지난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알리

고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한 브랜드이다.

꿈드래 홈페이지에는 전국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379곳) 및 판매시설(16곳) 현황, 품목별 제품(1773개)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꿈드래

홈페이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제품이 다양해지고 품질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구매에 앞장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알리미 ‘꿈드래’ 홈페이지.

장애인 복지 수준 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상위·하위 격차 2012년 1.34배→2013년 1.53배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월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장애인 복지분야의 분석에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정보접근, 복

최고 66.95점		↓ 전국평균 51.54		최하43.87점	
우수(5)		양호(4)		보통(4)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제주		서울, 부산, 충남, 충북		울산, 인천, 전북, 경기	
				대구, 전남, 경북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 50개 지표가, 교육분야에는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이어 대전이 66.95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주, 강원, 경남, 제주도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우수' 등급 지역 가운데 경남은 지난해 57.3점에서 올해 61.7점으로 7.7%가, 광주는 지난해

60.7점에서 올해 64.4점으로 6%가 향상돼 많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경북, 전남 지역은 '분발' 등급에 포함돼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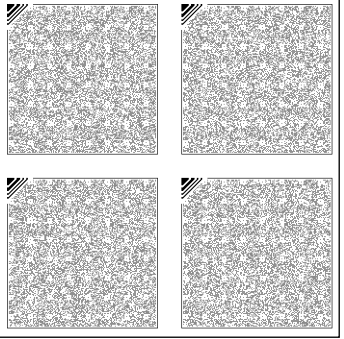
특히 전남 지역의 올해 점수는 지난해 보다 20%나 하락해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올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제주, 광주, 경남, 부산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다소 점수가 하락했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지난 2012년 1.34배,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음을 보여준다.

한편 장애인 교육 분야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보다 3.24점 상승해 72.42점을 기록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 충남,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 교육 분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경남도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 경기는 지난해와 같이 '분발' 등급에 머물렀으며 전북, 경북도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1.22배로 이는 지난 2012년 1.20배와 비교해 미미한 차이지만 다시 격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장애인들의 평가는?

전장연 등 기자회견 열고 장애인 공약 파기 규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2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선거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고 장애

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제공을 약속

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예산 문제로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고 중증장애인에겐 지금보다 2배 많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도 예산확보를 못해 흐지부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토로했

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의 복지성적표는 빵점짜리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위법·부당사례 적발

부당 지출된 운영비도 회수·반납 조치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

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출된 운영비 2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조치 했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23.5%), 예산집행 부적정(33.3%), 운영비 편법 지출(19.7%) 등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회계교

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사례 가운데는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2년마다 등급을 재판정해 장애수당을 조정해야 함에도 장애등급 판정 없이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도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하거나 후원금으로 임직원의 직책 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시설회계에 적립해야 할 운영충당 적립금을 법인의 인건비로 부당 전출한 사례도 조사됐다.

안행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 스마트 TV,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

음성안내 · 화면확대 · 화면 고대비 UI 기능 적용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TV를 선보인다고 1월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 TV에 음성안내 기능, 화면확대 기능, 화면 고대비 UI(User Interface) 기능 등을 적용했다.

음성안내 기능은 방송정보뿐만 아니라 스마트 콘텐츠와 TV에 연결된 영상 소스까지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폭넓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TV 시청 중 채널 이동시 채널과 방송국 이름은 물론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방송안내) 정보까지 음성으로 지원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방송국의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허브의 'On TV'



삼성전자가 올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한 TV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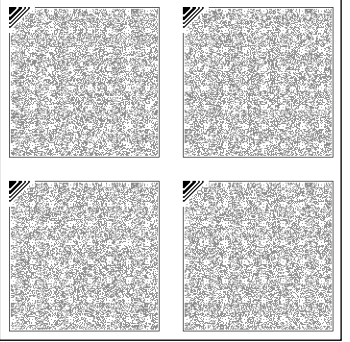
패널을 사용할 때 리모컨으로 콘텐츠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방송국, 방영시간 등을 음성을 통해

알려주며 스마트 컨트롤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 콘텐츠를 추천받으면 화면 하단에 나온 콘텐

츠 리스트를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화면 확대 기능과 화면 고대비

소리로 읽는 새보람



UI기능은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기능으로 화면을 또렷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허브에서 해당 섬 네일(Thumb Nail)과 콘텐츠 이름 크기가 크게 확대되고 글자 역시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굵게 표시된다.

스마트허브의 패널 배경 색상도 단일 색깔로 바뀌면서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츠 섬 네일이 도드라지는 효과를 주어 콘텐츠 정보를 더욱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접근성 기능 테스트에 직접 참여한 시각장애인 문광만 씨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TV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질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지원부 나광석 과장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으로 환원해야...

다사다난했던 2013년, 장애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일 것이다.

2005년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예전처럼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서울88체육관에서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한데 모여 '중앙환원권기대회'를 갖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3년 8월 박병석 의원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앙환원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고 9월에 정부는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국

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환원의 대상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준다.

직업재활시설 역시 중앙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만드는데 생산원가의 비중이 높아 보조금 지원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보조금의 격차가 매년 커지고 이로 인해 지자체간 생산원가의 차이가 커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적게 받은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을 많이 받은 직업재활시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직업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모두가 중앙환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상생을 해야만 우리 모두 올바른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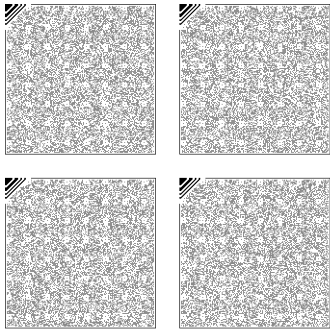
지난 2014년 1월 2일 최동익 의원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을 중앙환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며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 날을 그려본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소통과 공유 통해 조직의 발전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종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벽찬 감동과 희망으로 갑오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사랑이 충만하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김광환 중앙회장 체제 출범 이후, 우리 협회의 향후 전망을 가름하는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우리 협회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 확립의 원년으로 삼아 협회의 위상 정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회 사무처 직원들은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로, 중앙회와 지역 협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공유를 통해 조직의 유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장애계의 당면 현안이 쌓여 있는 지금, 우리 협회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중앙회와 지역 협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 가치인 ‘확실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회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조직 행정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앙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협회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기존 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가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의 장애인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한 대외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협회의 조직과 인사관리 등 협회 운영에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될 뿐입니다. 우리 협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의 조직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저마다의 역할에 매진해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만 더욱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협회가 어떤 조직보다 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와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그리고 협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협력적 동반관계로서 서

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적인 ‘확실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 탑을 반목과 갈등으로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상생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조직입니다. 창의적인 정신과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종성

“역량강화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할 것”

지장협 제11기 시·군·구 지회장 내정자 직무교육 실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제11기 시·군·구 지회장 내정자 직무교육’에서 강의를 펼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장애인 지도자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11기 시·군·구 지회장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인천·전북·충북·충남·제주·강원·경남,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경북 등 권역별로 나눠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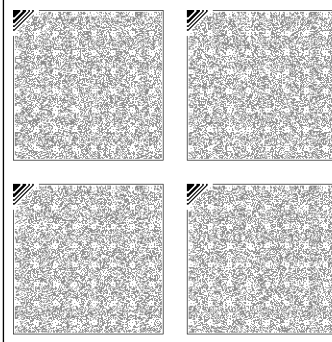
지장협은 김광환 중앙회장의

‘리더십의 이해’, 조항현 이사의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 이종성 사무총장의 ‘협회 운영 현황과 과제’,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의 ‘편의센터 운영관리’, 임순봉 조직협력국장의 ‘조직관리 및 실무’ 등 다양한 업무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선진회계법인 김용철 회계사의 ‘비영리단체의 회계관리’, 노무법인송민 김태철 노무사의 ‘단체경쟁력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계천 기업지원부장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국제교육개발진흥원 정경옥 원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어졌다.

한편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제11기 시·군·구 지회장 내정자들에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인 열정, 성실성, 용기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추운겨울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 실천

장애인·독거노인 이부자리 지원 사업 실시



서울지장협 노원구지회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이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지회장 이흥주, 이하 서울지장협 노원구지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서울지장협 노원구지회는 '나눔! 포근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부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12월 31일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 100여 가구에 이불을 전달했다.

소외되어 살아가는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개인 후원자들이 1년 동안 모은 후원금으로 진

행돼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장협 노원구지회 이흥주 지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친화적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지장협 노원구지회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 가구를 선정했다.

경기지장협, 2013년 사업 평가 자리 마련

협회 발전 위한 방안 논의...우수 직원 표창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에 장학기금 전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12월 19일 수원 웨딩의전당에서 지난 2013년 한 해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지장협은 협회 및 지회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경기지장협 평가 연찬

회'를 개최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힘쓴 협회 및 지회 임직원 18명을 선정해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30명에 대한 장

학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지장협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12월 11일 '1일 3색, 지장협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한바 있다.

경기지장협 후원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국민연금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과 지회 임직원들이 협회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도 후원

금을 통해 장학기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장애인 무료 이·미용서비스 실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재능기부로 진행돼 눈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지회장 허윤선, 이하 경기지장협 성남시지회)가 매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장협 성남시지회의 무료 이·미용서비스는 성남시 수내동에 위치한 알마미용실 대표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지장협 성남시지회의 무료 이·미용서비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매월 첫째주 일요일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경기지장협 성남시지회(☎031-746-5826)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지장협 성남시지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향한 관심이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며 "매월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알마미용실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14회 후원회 장학금전달식 및 복지증진대회’ 열려



‘제14회 후원회 장학금전달식 및 복지증진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지회장 박성호, 이하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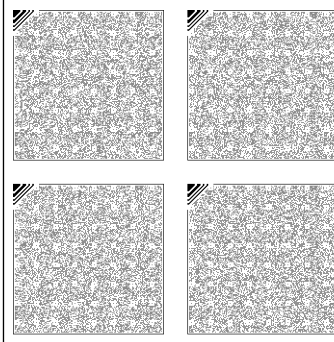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는 1월 10일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

센터에서 ‘제14회 후원회 장학금전달식 및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 후원회는 장애 대학생 12명에게 1800만원, 고등학생 10명에게 500만원, 장애인 가정 22가구에 660만원과 쌀을 전달했다. 창원시장장애인무료급식소에도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영화배우 강동원이 300만원, (주)월드디에스 김정연 회장이 300만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100만원, 국제라이온스클럽 355CC지구 4A·4B 지역 회원들이 500만원을 기탁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라북도 장애인단체 몸·숨·마음 보듬기’

사회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노고 격려



전북지장협 김형곤 협회장이 전북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가 올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쓴 전라북도 사회복지 단체장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지장협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전라북도 장애인단체 몸·숨·마음 보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라북도 28개 사회복지 단체장과 실무자 120여명은 전북대학교 백종만 교수의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과

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의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장협 김형곤 협회장은 “장애인고 비장애인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 복지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앞장”

전남지장협 · 구례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경철, 이하 전남지장협)가 1월 8일 구례경찰서를 비롯한 WBC 복지 TV 전남방송본부,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와 ‘실버마크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는 구례경찰서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과 휠체어 이용자의 휠체어에 실버마크(고령운전자 표시)를 부착해 이들을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남지장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노인

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구례경찰서와 서로 힘을 모아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마크 부착식’과 ‘안전 헬멧’ 전달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전남지장협 박경철 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실버마크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관계 기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지역 여성장애인 직업교육생 모집

무료 재봉틀 교육 실시...취업 및 창업에 도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 이하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여성장애인 직업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재봉틀을 사용해 옷을 만드는 홈패션 교육으로 월 3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할 경우 1월 31일까지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관계자는 “홈패션 직업교육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창업, 양장기능경기대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1월 31일까지 여성장애인 홈패션 직업교육생을 모집한다.

회 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기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장애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 054-284-0855)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지장협 담양군지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3년 사업 돌아보고 새해 각오 다져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지회장 여운복, 이하 전남지장협 담양군지회)가 12월 19일 담양을 컨벤션웨딩뷔페에서 ‘2013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전남지장협 담양군지회 여운복 지회장과 회원, 담양군 최형식 군수, 담양군의회 전정철 의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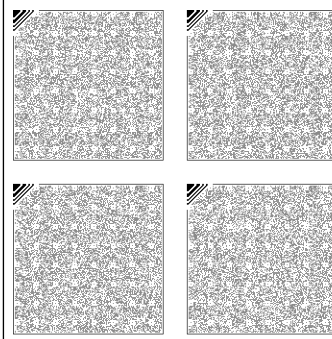
전남지장협 담양군지회는 2013년 사업을 돌아보고 새

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지장협 담양군지회 여운복 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은 ‘2013 송년의 밤’ 행사에 앞서 한국교육진흥원 최유미 본부장의 ‘사상체질을 통한 건강교육’ 강좌도 실시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열려

음악회 · 연극 · 영화 등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문화예술축제를 찾은 북부장북 이용고객들이 작품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문화예술축제는 아마추어 장애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축제 첫째 날에는 하모니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북부장북 연극반의 ‘오페리아의 그림자 극장’ 공연, 북부장북

과 뇌성마비복지관 밴드의 노래 공연 등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상영됐으며 뮤지컬 공연, 북부장북 동호회 회원들의 미술 · 사진 · 의류 · 침선공예 작품 전시도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송년행사가 열려 북부장북 직원과 이용고객들이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마련됐다.

괴산군 장애인 스키캠프 운영

스포츠 활동 통해 장애의 벽 허물어...



‘제1회 괴산군 장애인 스키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사조리조트에서 ‘제1회 괴산군 장애인 스키캠프’를 실시했다.

장애인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안전교육과 개인 맞춤형 스키 강습을 받으며 스포츠를 통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괴산장북은 이번 스키캠프가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내다봤다.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올해 처음 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장북,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장애인 독립생활 능력 향상 기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산장북은 지난 2004년 LG 복지재단으로부터 리프트 차량

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인들이 병원, 관공서 등을 방문할 때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이

동에 제약이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독립생활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아산장북 지역사회재활팀(☎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아동 대상 장애체험 프로그램 눈길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



장애체험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이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이 장애인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영천장북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라벌예술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체험, 휠체어 체험, 점자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영천장북 이제근 관장은 “이번 체험 활동은 아동들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유성장복에 전해진 사랑의 티켓

(주)행복한세상, 장애아동에 문화체험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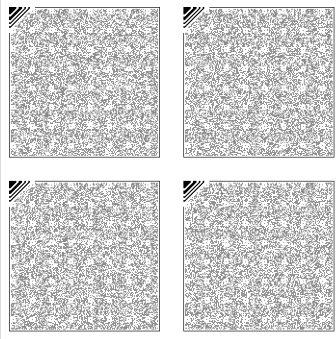
유성장복 윤석연 관장(가운데)이 (주)행복한세상으로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2014 해피윈터페스티벌’ 티켓을 전달받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장복)이 (주)행복한세상의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에게 겨울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성장복은 1월 2일 (주)행복한세상으로부터 ‘2014 해피윈터페스티벌’ 티켓을 전달받았다.

‘2014 해피윈터페스티벌’은 실내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장애아동들도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주)행복한세상은 유성장복 외에도 대전지역 5개 장애인 복지관에 ‘2014 해피윈터페스티벌’ 티켓을 전달했다.

(주)행복한세상 김창식 대표는 “장애인들은 비교적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편인 것 같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소득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문경장복, 장애인에 난방연료 · 생필품 전달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추운 겨울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경장복은 12월 31일 저소득 장애인 가정 26세대에 600만원 상당의 난방연료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된 물품은 문경장복이 문경지역 금융기관, 병원, 마트 등에 비치한 모금함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마련됐다.

문경장복 관계자는 “특히 문경장애인후원택시봉사회 회원들이 택시에 모금함을 설치해 모

은 성금을 문경장복에 후원해줬다”며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문경장복은 지난 2003년부터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 및 생필품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경장복 임직원들이 장애인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김천 장애인들의 축제의 장

‘제9회 한마음대잔치’ …작품발표회 열려



‘제9회 한마음대잔치’에서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이 복지관 이용고객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열었다.

김천장복은 12월 29일 복지관 강당에서 복지관 이용고객과 지

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한마음대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수화, 합창, 전통공예, 천연염색 등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발표회가 열렸다.

누구나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단체 게임 등도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생신 맞은 장애 어르신에 식사 제공

남부장복,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 실시



남부장복이 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은 12월 23일 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를 마련했다.

6번째를 맞이한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는 홀로 생일을 보내는 장애 어르신들을 위해 남부장복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생신상차려드리기’

는 공주의 한 두부요리 전문점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매번 생일을 쓸쓸하게 보내곤 했는데 이번 생일은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 후원 문의는 남부장복 재가복지팀(☎041-856-7071)으로 하면 된다.



지장협 2014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이모저모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열린 '지장협 2014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윤리현장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산하 시·도협회장, 시·군·구지회장, 시설장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장협 이건휘 부회장이 특강을 펼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양경자 전 국회의원에게 고문 위촉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보령시 김창현 부시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충청남도 박정현 정무부지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임원, 산하 시·도협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이 담겨있는 책자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발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28개 정부 부처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 183건을 보건복지, 세제, 문화·통신 등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올해 변경된 제도 가운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아두면 좋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액을 인상 한다.

소득하위 63%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겐 지원되던 장애인연금이 올해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9만 7천원이던 기초급여액도 2배 인상돼 20만원이 지급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성년후견지원과 관련해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된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응

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을 20곳에서 80곳으로 늘리고 인원도 21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오는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

로 개편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



올해부터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우선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와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실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과 아동이 치료기관 방문 시 보호자 동반

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동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 상태와 치료 여건을 고려해 간병비도 지원하며 13세 미만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까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필수급여에

포함한다.

우선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영상검사, 내년에는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장애인 고용시 세액감면 확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에 대

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취약계층의 고용비용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장애인과 6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과 노인은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웹 접근성 인증기준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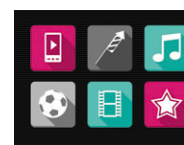


올해부터는 지정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공통된 인증심사

기준, 절차, 범위 등을 토대로 웹 접근성을 인증한다.

그동안은 여러 기관과 단체가 웹 접근성을 인증해왔으나 서로 다른 인증기준으로 인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2월부터 선착순 발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디지털 TV 구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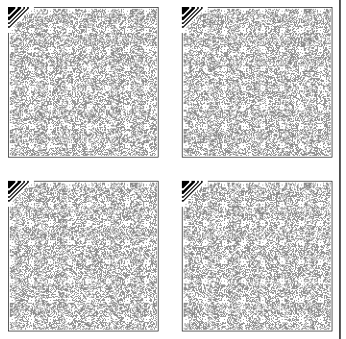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

상위계층 등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급되는 디지털 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으로 디지털 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글짓기 부문 대상 수상작

바람이 내게 말을 걸어 왔다

■ 부 유 생 (지체장애 1급, 57세)

바람이 내게 말을 건다.
“너는 왜 창문을 꼭꼭 닫고 있니?”
나는 대답한다.
“바람 맞을까봐?”

바닷바람이 시원한 제주도 화북 바닷가에서 헤엄치던 어릴적 모습이 생각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물속에서 노는 걸 좋아했고 수영 하나는 기막히게 잘 했던 기억이 난다. 물속에서 만큼은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러나 나의 자유와 행복은 늘 혼자였다. 신체의 장애는 마음속까지 장애자로 만들어버렸다. 시원한 바람도, 자유로웠던 물속도 때론 상처가 된다는 걸 그때 배웠다.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나는 스무살 즈음 친구들과 다른 내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이성도 있어도 나의 장애가 대물림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30대 중반에 들면서 장애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잠그고 사는 내가 측은하었는지 자주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도록 유도했다.

‘장애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길게 아픈 병이라고, 언젠가는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다.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꼭 걸어 잠그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보다 장애가 더 심한 사람들과 나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스스로 치유되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업고 다니면서 만사를 제쳐두고 항상 내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언니들의 하얀 교복칼라에 흠을 뿌리고 운동화를 물에 적시는 등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언니들 때문에 학교에 못가는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심통을 부렸다.

조카들도 안아주지 못했다. 내 장애가 전염되는 것인 줄 알고...

지금은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 돌이켜보니 마음의 문을 닫은채 지나가버린 어린 청춘이 애달프다.

지금은 어리석었던 과거를 깨우쳐주기라도 하는 듯 조카들은 이 못난 이모를 좋아한다. 조카들을 통해 세상사는 기쁨을 다시 배우고 있다.

나의 하루는 새벽에 뜨는 태양보다도 일찍 시작된다. 새벽 3시.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인생이 시작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에서 일한지 어느덧 13년.

목욕탕의 하루는 술한 사람들이 저마다 피로한 얼굴로 와서 세상의 고달픈 사연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즐겁고 다정한 얼굴로 돌아서는 따뜻한 등을 바라보며 당신의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나의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라고 속삭인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일이 있어 행복했다. 일이 즐거워서 행복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다.

간혹 장애인 연금으로 편하게 살지 왜 나와서 고생하면서 일하느냐



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장애라는 혜택 속에 안주하다보면 내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매일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도시락을 싸고 콜택시에 전화를 하고 약속된 시간보다 10~15분 일찍 나와서 기다린다.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장애인이라서 느리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준비하곤 했다.

태풍이 불면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에 복지관 목욕탕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아니 더 깊은 내면에는 장애인이라서 실수를 하면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의 모자람을 채워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다.

나도 실수를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실

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때론 일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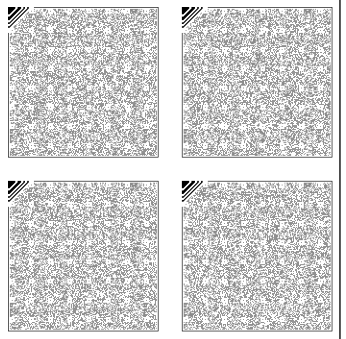
그럴 때면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를 생각한다.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월급을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해서 총무부 직원이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첫 월급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겐 전율을 느낄 만큼 스스로에게 큰 감동이었다. 눈물이 핑돌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 초심으로 오늘도 출근길에 나선다.

바람이 내게 말을 건다.
“너는 왜 이른 새벽에 힘들게 출근을 하니?”
나는 대답한다.
“바람 맞으려 간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갑수룩 증가하는 갑상선 질환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 100%

최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암 발병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체온조절, 호흡, 심장수축, 각종 호르몬 대사 등 우리 인체의 대사과정을 조절해 각 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계, 혈액계, 위장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신체 전반적으로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남성이나 폐경 전의 여성에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분비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중감소, 두근거림, 손떨림, 초조함, 신경예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근력약화,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눈이 튀어나오거나 안구건조증,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이상 등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원인일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기능항진증과는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추위에 예민해져 수족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만성피로와 식욕부진, 기억력저하, 우울증, 생리불순과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갑상선 자체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자가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뇌하수체의 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100%로 전이되는 속도도 느려 ‘착한암’이라 불린다. 그러나 갑상선암을 우습게보면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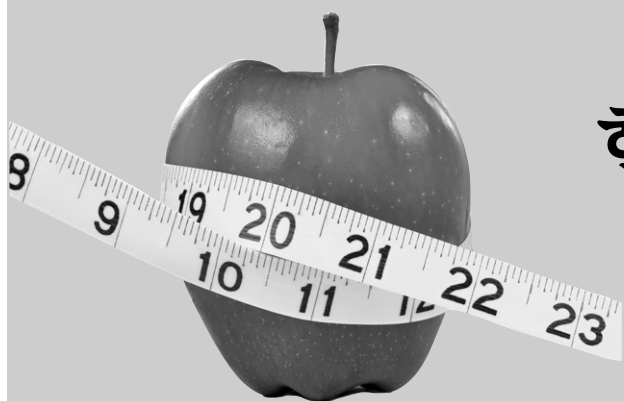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6.6%를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은 완치율이

높은 반면 국내 발생확률이 낮긴 하지만 수질암, 역형성암의 경우는 생존율이 떨어지고 치료가 곤란하다.

갑상선암이 폐, 뼈 등 다른 조직으로 원격전이 된 경우 생존율은 69.1%로 떨어지며 재발률도 높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과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이 검진센터에 왔다가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 이상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갑상선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중년여성, 가족력이나 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예방”에 좋다고 조언했다.



합병증 동반하는 무서운 당뇨병

방치시 위험...식단 및 비만 관리해야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221만명 가운데 약 111만명이 당뇨병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송영득 교수는 “당뇨병은 한 번 발병하면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5% 미만이고 아직까지 완치시키

는 약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뇨합병증은 근본적으로 망막혈관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신장 사구체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신경혈관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있다.

당뇨병을 방지하게 되면 합병증이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급성합병증으로 인한 고혈당성 혼수는 병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

할 수 있으며 만성합병증은 실명, 혈액 투석, 발저림, 족부궤양, 하지 절단, 감염, 폐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유발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과 심장혈관 질환이 다른 사람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동부족, 비만, 고지방·고열량 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 등을

꼭을 수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 체중 유지, 복부비만 관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공복혈당 검사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당뇨병의 모든 합병증은 당뇨병 초기부터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합병증이 발생하면 질환에 대한 특수치료를 추가해 합병증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뇌성마비 시인 작품 저작권 논란

김준엽 시인, 강탈당한 저작권 돌려달라 요청



뇌성마비 시인 김준엽 씨.

한 뇌성마비 시인의 작품이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장애인 문학지 숲대문학은 뇌성마비 시인 김준엽이 최근 작품 저작권을 강탈당했다며 이를 바

로잡아 줄 것을 숲대문학에 요청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김준엽 시인이 20여년 전 쓴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란 작품이 윤동주, 정용철, 작가미상

등의 이름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준엽 시인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시 7편을 제출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김준엽 시인의 활동보조인은 문제의 시가 인터넷 상에서 좋은 글로 사랑받고 있는 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숲대문학에 억울한 사정을 알려온 것이다.

이에 숲대문학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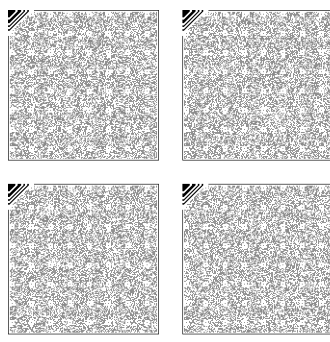
숲대문학에 따르면 문제의 시는 김준엽 시인이 하이텔 사이버문단을 통해 자신의 시를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하던 1995년 봄, 한 출판사에서 시집을 발간해줄겠다는 제의를 받고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으나 그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김준엽 시인은 시집 출간도 못하고 작품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월간 ‘좋은생각’ 1995년 9월호에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란 작품과 유사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란 제목의 시가 ‘좋은생각’의 발행인 정용철 시인의 작품으로 게재됐고 정용철 시인은 ‘내 인생이 끝날 때’로 제목을 수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숲대문학은 “시인 김준엽의 시와 유사한 ‘내 인생에 황혼이 오면’이란 작품은 작가 미상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윤동주, 정용철 또는 작가미상으로 표기되는 등 그 어디에도 김준엽 작가의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숲대문학 방귀희 발행인은 “김준엽 시인의 작품이 윤동주의 작품으로 둔갑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 작품이 우수하다는 증거”라며 “‘내 인생에 황혼이 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면’이 김준엽 작가의 작품임을 밝혀 저작권을 되돌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작품 도용 사례가 적지 않기에 장애인작품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엽 시인은 중증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조차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펜을 입에 물고 시를 써 2011년 첫 시집 ‘그늘 아래서’를 출간했고 새해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하며 시인으로, 운동선수로, 사회복지전문가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 미술작품 해설 오디오 콘텐츠 제작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 통해 재능 기부자 선발

시각장애인들의 미술작품 감상을 돕는 오디오 콘텐츠가 제작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국내 최초로 일반인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500점의 미술작품 해설이 담긴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번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착한 목소

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문 성우의 심사를 통해 목소리 재능기부자 500명을 선발했다.

최종 목소리 재능기부자 500명은 심사 당일 전문 성우의 지도를 거친 후 1인당 1점의 미술작품 해설을 녹음했다.

이날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에 참여한 김윤정 씨(26세)는 “특수교육 전공자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 안

타까웠다”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뜻 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녹음된 오디오 콘텐츠는 오는 2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미술작품 해설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목소리 재능기부자 선발을 위한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손쉽게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무료 스마트폰 앱도 제작된다.

내년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들어선다!

예산 52억원 확보... 옛 예총회관 리모델링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있는 옛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건물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된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은 주로 사회복지 영역으로 다루

어져 왔으나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은 장애 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예산에 5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옛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월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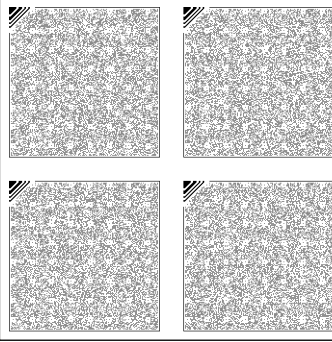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 기능, 문화예술 교류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축이 마련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문화예술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문화예술의 대중화, 창작의 전문화, 창작의 공간화, 문화예술의 직업화 등을 꼽은바 있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창작계획 및 실행, 전문 문화예술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와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조직위 황의식 사무총장과 APC 아브자린 회장, 말리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직위 황의식 사무총장은 “모든 아시아인들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3개 종목에 6천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인천장애인AG, 대회 준비에 박차

‘D-day 전광판 제막식’ 행사 가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성일, 이하 조직위)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직위는 12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D-day 전광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송영길 시장,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 조직위 김성일 위원장, 대회 홍보대사 엄홍길 씨, 대회 개·폐회식 박칼린 총감독,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D-day 전광판 제막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D-day 전광판 제막, 대회 엠블럼기 게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광판 카운트다운은 대회 300일 전인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조직위 김성일 위원장은 “조직위 전 직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대회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이번

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감동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위는 1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

양평군청 유도팀, 시각장애 선수에 문 활짝

시각장애 최광근 선수 이어 이민재 선수 영입

지난해 전국실업유도대회 단체전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양평군청 유도팀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양평군청 유도팀은 지난 2010년 창단 당시 시각장애 최광근 선수를 입단시킨 이래 올해 시각장애 이민재 선수를 추가로 영입했다.

최광근 선수는 입단 이후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해 장애인, 비장애인 대회에 두루 출전

하며 실력을 쌓고 지난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다.

이에 이번에 신규 영입된 이민재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성훈 유도 감독 대행은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이민재 선수의 열정과 노력을 보고 양평군청 관계자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이번 이민재 선수의 입단을 통해 보다 많은 실업팀이

장애인 선수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장애인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IBK기업은행 사격팀 최수근(청각), 대구백화점 사격팀 김태영(청각), 창원시청 사격팀 김기현(청각), 김천시청 배드민턴팀 신현우(청각)·신경덕(청각), 안산시청 유도팀 홍은미(청각), 경상북도청 볼링팀 안성조(청각), 수원시청 탁구팀의 이창준(청각) 등이 있다.

“동계스포츠 체험 위해 한국 찾았어요”

전세계 장애·비장애 청소년 한 자리에

전세계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 체험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강원도가 겨울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의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드림프로그래밍’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올해 ‘드림프로그래밍’은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동안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빙상경기장 등 강원도 일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39개국 160명의 장애인·비장애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분쟁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내전 중인 시리아의 난민 청소년 4명이 특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드림프로그래밍’ 참가 청소년들은 스키·빙상 훈련, 봅슬레이·스켈레톤·바이애슬론·컬링 체험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한편 지난 2004년 시작돼 총

62개국 1246명이 참가해온 ‘드림프로그래밍’은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드림프로그래밍’ 참가자 중 일부는 자국 국가대표로 동계올림픽, 동계유소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그동안 ‘드림프로그래밍’이 동계스포츠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천훈련원 원장에 이명호 씨 취임

“장애인선수 및 고객 만족 위해 힘쓸 것”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하 이천훈련원) 제3대 원장에 이명호 씨가 취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3일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제3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2016년 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이천훈련원을 이끌어가게 된 신임 이명호 훈련원장은 1999년 방콕아태장애인경기대회 역대 동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총감독을 역임했다.

또한 2006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장, 생활체육부장, 시설운영부장, 교육훈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이명호 훈련원장은 취임식에서 “이천훈련원이 장애인 선수를 포함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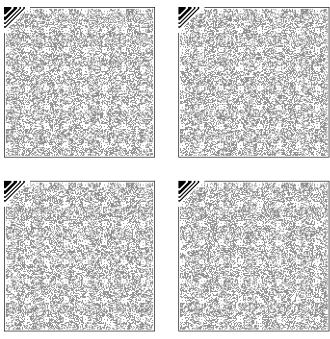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신임 이명호 원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다”며 “대한민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신임 이명호 훈련원장이 선수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천훈련원을 새롭게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임 이명호 훈련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 승인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장애인 거부?

성인 발달장애인 일행 “장애인이라 쫓겨났다” 주장 해당 지점 주인 “일행들의 음식 싸움 때문” 반박



미국 맥도날드의 한 지점 주인이 장애인들을 쫓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KXTV>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장애인들을 쫓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장애인들을 쫓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장애인들을 쫓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미국 맥도날드의 한 지점이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1월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인솔자는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맥도날드 체인점을 찾았다.

그러나 해당 맥도날드 지점 주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일행에게 다가와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일행이 일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 일행 인솔자는 당시 업무를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라며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지점 측은 장애인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맥도날드 지점 주인은 ‘뉴스 10’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일행들의 음식 싸움과 다른 손님

들에 대한 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며 그동안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 일행 인솔자는 당시 그 어떤 음식 싸움도 없었고 모두 바르게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장애인의 놀라운 스케이트보드 실력

두 다리 없이도 화려한 기술 선보여

한 장애인의 놀라운 스케이트보드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두 다리가 없는 브라질 청년 이탈리아 로마노(26세)가 그 주인공이다.

1월 2일 유튜브에는 이탈리아 로마노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긴 3분짜리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미국 일간지 뉴욕 데일리뉴스를 비롯한 호주 포털

사이트 나인엠에스엔 등 전 세계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탈리아 로마노는 두 팔로 스케이트보드의 속력을 높이는 등 상체만으로 능숙하게 플립, 점프 등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계단, 벤치 등을 뛰어넘으며 힘차

게 거리를 활보하는 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다.

13살 때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탈리아 로마노는 사고 직후 좌절감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케이트보드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재는 선수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2년에는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이 출전하는 유명 대회에서



상체만으로 화려한 스케이트보드 실력을 뽐내는 이탈리아 로마노. <사진 : youtube>

준결승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영상을 통해 이탈리아 로마노의 스케이트보드 실력을 확인한 네

티즌들은 ‘경이롭다’, ‘존경스럽다’,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년 전 잃은 시력을 되찾은 올라 주 할머니. <사진 : Seriges Radio>

스웨덴 시각장애 할머니의 시력이 되돌아오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1월 5일 아프톤블라벳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71세의 올라 주 씨는 13년 전 뇌졸중 이후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모두가 축제 분

크리스마스에 기적 같은 일이...

13년 만에 시력 되찾은 시각장애 할머니

위기로 들뜬 크리스마스 연휴, 올라 주 씨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집에 걸려있는 상들리에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올라 주 씨는 “지금 거주하는 집에 9년을 살았지만 상들리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상들리에가 보이는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

거나 천국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올라 주 씨는 시력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라 주 씨는 “앞으로 외출해 만날 사람들, 특히 시력을 잃기

전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흥분된다”며 “이 기분은 형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올라 주 씨는 그녀의 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X선 촬영 등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접근성 I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고용, 교육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2009년 비준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약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2011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보고서도 곧 제출될 계획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에서 접근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기고한다.

■ 배경

접근성은 본 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합리적 편의의 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삶에 있어 필요한 기술,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이 삶의 환경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접근하게

될수록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

■ 내용 및 의의

본 조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식적·문화적 장벽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의사소통 및 대중교통수단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접근성 증진의 대상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관련기술 및 시스템 포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즉, 물리적 대상인 건물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인식적이고 기술적인 범주에 까지 접근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접근 가능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식별 및 철폐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위한 개발 공표 및 점검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설치
 -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현장지원과 매개체의 제공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
 - 장애인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장려
 -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 및 체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당사국들은 모든 사회영역의 기회평등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총체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당사국들은 (a)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하고 (b)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 당사국들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기준 및 지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주택, 건물, 대중교통서비스 및 기타 교통수단, 거리 그리고 기타 야외환경 등 다양한 사회의 분야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국들은 건축, 건설기술자와 기타 물리적 환경건설 및 설계전문가들이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접근성 보장요건은 설계과정 초기부터 물리적 환경설계 및 건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접근성 기준 및 표준이 개발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또한 공공건설작업이 설계되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접근성이 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b)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 장애인, 그리고 적절하다면 장애인 가족 및 옹호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진단,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장애인들에게 접근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접근가능한 정보서비스 및 문서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한다. 점자, 테이프서비스, 대형인쇄 및 기타 적합기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서면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적합기술은 청각장애인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구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청각장애아동의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수화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화통역서비스는 또한 청각장애인간의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 기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국들은 미디어(특히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의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당사국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컴퓨터 정보 및 서비스 시스템이 처음부터접근 가능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변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정보서비스가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개발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에서 나아가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까지 그 범위는 확장된다.

결국 모든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지하철, 버스, 정보 혹은 의사소통 이용과 같은 모든 형태의 환경 및 조건들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근절하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게는 교육, 의료, 정보이용, 근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과 변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특징적으로 의사소통이나 감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마련을 규정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접근성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으

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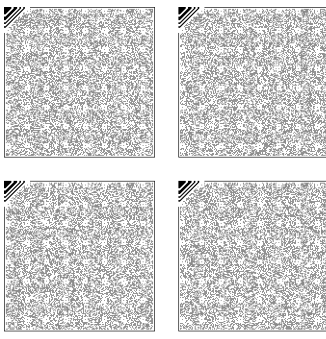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장애인이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습득 및 공유수단,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정보화의 증진은 사회통합의 한 방편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역시 장애인을 이용자로서 배려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를 장애인도 접근·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와 특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 교육하며 비용을 보조해 주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서나 음성서비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사용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대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등 조항의 성격이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즉각적인 실현의무를 부여하는가의 여부이다.

장애의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접근성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도한 예산과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의무는 즉각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즉,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문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접근성을 높이거나 장벽을 철폐하는 사업이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그 사회의 가용자원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이 크고, 가용자원 및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점진적인 실천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해당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가용자원과 장애인권의 현실 등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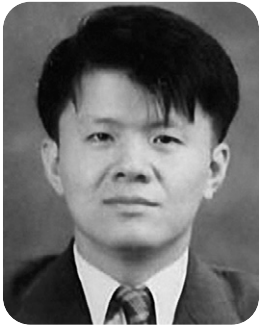
편의증진국장
홍 현 근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르면 손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효력



1997년 3월 13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만 특정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추가적 가산임금의 부담 없이 계절적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도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자주 볼 수 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지 며칠 되지 않아 첫째 주는 34시간을 근무하고 둘째 주는 46시간을 근무했다.

그런데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문의했더니 우리 회사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물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 측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피상당자를 통해 취

업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주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취업규칙(사규)에 해당 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장애인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근로계약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지, 몇 주 단위인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사례의 경우처럼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장애인연금 제도란 무엇 입니까?

A)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Q)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

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급여는 96,8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부가급여는 월 2~17만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Q)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아동이 21세가 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심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중증장애인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의사로부터 의식불명 판정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연금 지급여부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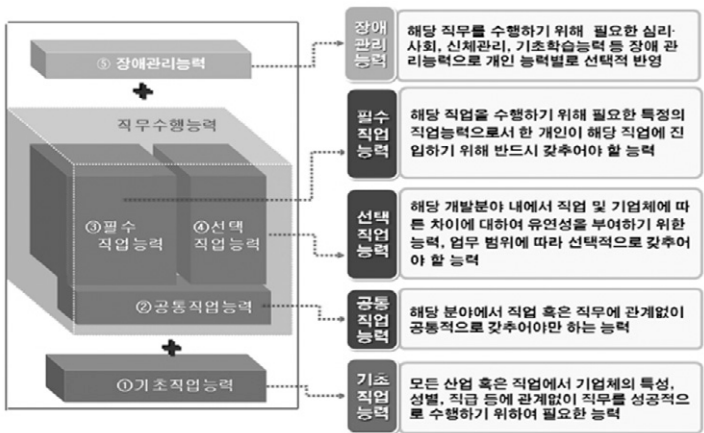
A) 지급여부는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Q)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사망,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구축

NCS 기초...장애인 직업능력단위 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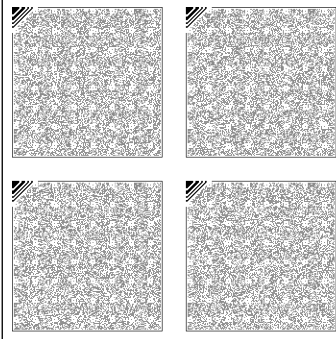
2011년 ‘NCS 기반 직종별 세부훈련기준집’, 2012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별 시설장비 기준집’ 제작에 이어 2013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계획서 및 학습안내서’ 보급을 마지막으로 이번 체계 구축

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기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비장애인 훈련과 동일하게 수립된 교육계획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된 체계에는 12개 분야 60개 직종별 세부훈련 계획 단계부터 비장애인과 차별되는 장애관리능력이 추가되어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또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무작업분야(지적·자폐성장애 직업훈련), 웹접근성 직종(시각장애인 직업훈련) 등이 직업능력단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훈련기관은 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이 2014년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1월 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53명과 경증장애인 3명,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인천교육청, 올해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달성 기대

교육도 실시하며 장애인 고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 시행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013년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과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실시, 장애인 고

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기관에서 2013년 의무고용률 2.5%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

다.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김선미 과장은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 특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무기계약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 이상	4대보험	02-2289-4322
2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1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미화직	(주)휘세텍	경기도 부천시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노원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단순직	샘물실업	경기도 남양주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미가입	02-2289-4321
7	단순직	(사)해든	서울시 금천구	55세 이하	남	비데 부품 단순 조립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단순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상음향사업소	경기도 오산시	50세 이하	남	배달 및 cctv조립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단순직	미래환경	경기도 용인시	연령무관	무관	재활용 분류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생산직	로얄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무관	무관	미싱 보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경비직	모아안전시스템	서울 강남구	68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0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사무직	(주)서울기업금융센터	서울시 송파구	무관	무관	사무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생산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 관악구	30세 이하	남	사무직	월 102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미화직	(주)인영종합관리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5	주차관리	(주)청인시에스 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남	발렛파킹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6	미화직	대영종합관리	인천시 중구	65세 이하	무관	미화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8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생산직	HRS	경기도	50세 이하	남	생산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지속적 나눔 실천하는 영창산업

박수관 회장, 장애인에 후원물품 전달



영창산업 박수관 회장의 장애인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 지역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향한 한 기업인의 사랑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평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영창산업 박수관 회장이 12월 18일 장애인을 위해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에 슬리퍼 2000켤레를 기부했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

지회는 영창산업 박수관 회장으로 부터 받은 후원물품을 지역 장애인과 복지시설 20여 곳에 전달했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 고영수 지회장은 “장애인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영창산업 박수관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경민봉사회 회원이 장애인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경민봉사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실시

경민봉사회가 1월 9일 의정부시장 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민봉사회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10kg 쌀 14포대를 기부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배달했다.

경민봉사회 하준식 회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추운 겨울 혼자 지내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

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경민봉사회 덕분에 추운 겨울이 한층 따뜻해진 것 같다”며 “지역내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원 문의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031-850-5380)으로 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1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전화신청 : ☎02)796-4280
-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1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곽한순(이천푸드),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인수, 김정기, 김정태, 김정은, 김준곤, 김진호,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류영일,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벽산엔지니어링, 서동녀, 선병욱, 안종구, 예산군농협쌀조합물류,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소연, 유재복, 육근복, 윤정희(예산군농협쌀), 윤채환, 이상식, 이은정, 이태훈, 이효직, 임채중, 장주자, 정다운, 정선용, 정읍장애인복지관,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해피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7	8	
9			10	11			
	★			12	13		★14
15		16	★				
17				18		19	
		20				21	
22				23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
 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열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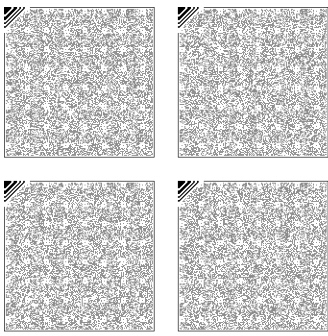
- 리플라이의 준말 형태로 쓰는 통신언어.
- 사랑으로 쓰는 방.
-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수신해 음성으로 바꿔 주는 기계 장치.
- ‘발돋움’의 옛말.
-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 정식의 복장을 함.
-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
- 웃어뜰게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
- 선율·리듬·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나가는 기악곡.
- 공통적인 기후 특성에 따라 구분한 지대.
-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규모의 경제 공황.

-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함.
-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따위를 공연하거나 발표하는 예술 행사.
-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생긴 부작용.

| 세로열쇠 |

-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회전축에 달아 놓은 바퀴.
- 중국 명대의 장편 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
- 잘못을 용서하여 놓아줌.
-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 오락으로서 즐길 수 있는 성질.
- 오랫동안 깊이 생각함.
-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란 뜻으로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이르는 말.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 물음에 대하여 밝혀 대답함.
- 임금이 친히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빌며 지내던 제사.
- 고려인 기자오(奇子敖)의 딸로 1333년에 고려인 내시의 도움으로 원실(元室)의 공녀가 된 뒤 1340년에 황후가 되어 30년 동안 권세를 누렸다.
- [북한어] 대표임을 인정하는 증명서.

정
답
가
리
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의
 자.

12월호 정답

장애인연금

당
첨
자

김기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일청 전남 장흥군 안양면
 이해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

다른그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을 한해 협회 발전을 기
 원하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
 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
 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